



-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132, 502호 (03133)
- 전화 : 070-7011-3403
- 팩스 : 02-6280-3403
- 이메일 : ndau.kr@gmail.com
- 카페 : <http://cafe.daum.net/paspower/>
-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ndau.kr/>
- 배포날짜 : 2024년 10월 29일
- 문의 : 전덕규 사무국장 010-3845-6773

노동 존중, 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문화제
한여진시인과 함께하는 연대의 시 읽기
“기차놀이”

일시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오후7시30분

장소 : 성동구청 앞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을 통해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입니다.
3. 지원사노조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성동구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이용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이 있는 성동구의 지도를 요구하는 것이 시위의 목적입니다.

4.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는 2021년 12월 취업규칙을 개정합니다. 개정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휴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공서공휴일을 시급제 노동자에게는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명을 했습니다. 뒤늦게 지원사노조의 설명을 들은 활동지원사 80여 명이 개정 취소 요구에 동참했으나 센터는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체불임금 진정,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사건들 일부는 승소하였고 일부는 진행 중입니다.
5. 센터는 소송에 참여한 지원사노조 조합원 중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노동시간 변동에 차별 적용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활동지원기관의 의무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6. 이에 지원사노조는 성동구청 앞에서 “노동시간 차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성동IL센터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7. 한편 10월 31일은 ‘노동 존중, 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문화제’를 엽니다. 문화제는 지원사노조 투쟁을 지지하는 시인이 펼치는 연대의 시 읽기로 진행됩니다.

한여진 시인과 함께하는 연대의 시 읽기 “기차놀이”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30분 성동구청 앞

기획: 이정식 작가

협력: 황지운 소설가

그림: 이구석 만화가

시인: 한여진 시인

● 프로그램

(낭독) 인터뷰 / 한여진

(낭독)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 / 한여진

*사소한 것들로 자기소개하기

*미운 사람에 대해 말하기

(낭독) 그러니까 시는 / 진은영 작

(낭독) 내 안의 소금 원피스 / 김혜순 작

(낭독) 예보 / 임솔아 작

*슬픔에 대해 말하는 방법과 시 읽는 경험에 대해 나누기

참고 : 시는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진은영(오마이뉴스)

(낭독) 비유추의 계 / 백은선 작

*작은 발견, 주변 둘러보기

(낭독) 세탁소의 봄 / 박상순 작

(낭독) 빛은 사실이다 / 김현 작

*지고 온 경험 나누기

*그 다음날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보기

(낭독) 내가 가장 예뻐할 때 / 이바라기 노리코 작

*내가 가장 예뻐할 때를 떠올려보기

● 낭독은 한여진 시인과 현장 참여자들이 함께 합니다.

● 한여진 시인 : 2019년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등단. 2023년 첫 시집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 발표

◎ 기차놀이는,

-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와 그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회피와 방임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법의 가치와 인권은 늘 흔들리면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사람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구조의 연결고리를 방치하기도 합니다.
- ‘기차놀이’는 한시적인 연대의 행사가 아닙니다. ‘시는 누군가의 삶에 축적된 시간의 먼지를 들추는 회상의 이미지이자 흔적의 표상입니다.’*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언어, 삶의 형상을 담아낸 언어 아닌 언어인 시를 노동을 말하는 자리,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자리로 불러와 서로를 돌보는 언어의 감각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삶을 가로막는 것들, 삶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술한 요소들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낼 때의 무력함, 한계의 시간들 앞에서도 그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돌보려 하는 공감의 능력 덕분입니다. 기차놀이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서 우리의 삶의 장벽들 앞에서 꼬리를 물고 서로의 어깨를 잡고 밀고 돌며 멈추지 않는 공동체의 유희와 지속하기 위한 몸들의 감각입니다.
- 앞으로도 <기차놀이>는 연대가 필요한 현장에 ‘시’와 ‘시인’들과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진실 평론가 전시 <살갓의 자리> 서문 중 발췌

8. 귀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